

축구

8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부산, 윤석영 임대이적 공식 발표



윤석영

5년 만에 K리그1에 승격한 부산 아이파크가 12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풀백 윤석영(30)을 임대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2020년 1월 10일자 스포츠동아 8면 단독보도). 2009년 전남 드래곤즈에서 K리그에 데뷔한 윤석영은 2013년 퀸즈파크레인저스(잉글랜드)로 이적하며 한국선수 역대 11번째 프리미어리거가 됐고, 이후 돈캐스터 로버스·찰턴 애슬레틱(이상 잉글랜드), 브렌비(덴마크) 등을 거쳐 2017년 1월 일본 J리그 가시와 레이솔에 입단했다. 이후 2018년 후반기를 FC서울에서 보낸 뒤 지난해 강원FC에 몸담았다. K리그 통산 기록은 137경기, 5골·14도움이다.

황의조 한달만에 복귀전…팀은 역전패



황의조

축구대표팀 골잡이 황의조(28·지용명 보르도)가 12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올랭피크 리옹과 2019~2020 프랑스 리그앙 20라운드 홈 경기를 통해 복귀를 알렸다. 2018자르타-팔렘방아시아잔계급 금메달로 얻은 병역 면제에 대한 행정 절차를 위해 일시 귀국한 그는 후반 25분 교체 투입되며 지난달 15일 스트라스부르와 18라운드 이후 한 달여 만에 복귀전을 치렀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다. 팀도 1-2 역전패했다. 보르도는 4연패의 늪에 빠졌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전북, 국가대표 출신 DF 홍정호와 4년 계약

홍정호 품은 전북, 뒷문 걱정 지웠다



새 시즌을 앞두고 수비 보강에 열을 올린 전북은 앞선 두 시즌 동안 임대 신분으로 활약한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홍정호와 4년 계약하면서 최상의 뒷문을 구축하게 됐다. 스포츠동아DB

슈퍼리그 아시아쿼터제 폐지가 호재 장기계약 조건으로 베테랑 사로잡아 오반석·구자룡 이어 수비진 완벽 보강

K리그1 챔피언 전북 현대가 국가대표 출신 중앙수비수 홍정호(31)까지 품었다.

K리그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12일 “전북이 지난 주말을 즈음해 홍정호를 완전 영입했다. 아직 세부조율이 진행 중이지만 구단은 계약기간 4년을 제시하면서 선수에게 굳은 신뢰를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2018시즌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유니폼을 입은 그는 임대 신분으로 뛰었다.

전북은 홍정호의 완전 영입을 위한 작업을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다(2019년 12월 3일자 스포츠동아 6면 보도). 지난 시즌 홍정호, 김민혁(28)과 함께 후반기 뒷문을 책임진 국가대표 수비수 권경원(28)이 병역 의무를 위해 군 팀 상주 상무로 향하면서 전북은 수비 보강이 절실했다.

실제로 겨울이적시장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도 다펜스 안정이었다. 전북은 무양통 유나이티드(태국)에서 활약한 2018러시아월드컵 멤버 오반석(32)을 데려왔고, 수원 삼성에서 뛰다가 올 초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구자룡(28)을 영입했다. 여기에 홍정호를 붙잡은 건 화룡점정이었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홍정호는 원 소속 팀인 중국 슈퍼리그 장쑤 쑤닝과의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었다. 선수 본인은 장쑤 복귀에 무게를 신지 않았으나 규정대로라면 거액의 이적료 발생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장쑤가 꼭 아니더라도 홍정호에게 관심을 가진 팀들은 상당히 많았다. 축구계에선 한국인 장외통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충칭 당다이 리판과 허베이 화샤 싱푸 등을 홍정호의 유력한 차기 행선지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러 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전북은 포기하지 않았다. 두 시즌 동안 전주성을 누비며 K리그 55경기(3골)에 나선 베테랑에게 적극 구애했고, 4년이라는 장기계약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30대 중후반까지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한 셈이다. 물론 슈퍼리그가 올해부터 아시아 쿼터를 폐지한 것도 상당한 호재가 됐다.

전북은 뒷문 걱정을 완전히 털었다. 바이아웃 150만 달러(약 17억 원·추정치)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각지의 러브 콜을 뿌리치며 팀과의 의리를 지킨 김민혁과 함께 홍정호, 오반석, 구자룡으로 중앙수비진의 더블 스쿼드가 완전히 구축됐고, 그동안 팀 사정에 따라 중원과 후방을 바빠 오가야 했던 ‘다용도 자원’ 최보경(32)이 본래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K리그1 통런 꿈꾸는 광주의 ‘뜨거운 겨울’

후끈하다. 쌀쌀한 칼바람도 느끼지 못한다. 2020시즌을 K리그1에서 맞이할 광주 FC의 동계전지훈련 분위기다. 지난해 K리그2 우승으로 승격한 광주는 2일 전남 순천에 캠프를 차렸고, 점차 강도를 높이며 담금질에 여념 없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진행될 2차 훈련에 앞서 16일까지 잡힌 순천 캠프의 화두는 체력이다. 어쩌다 주어지는 휴식 일을 제외하고 오전·오후, 때론 심야까지 빽빽한 일과가 계속된다. 하이라이트는 지옥의 고

통을 맞보는 서킷. 10개 이상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 훈련이 다가오면 선수들은 입맛을 잃는다. “온 몸의 근육과 힘을 전부 쏟아야 한다. 훈련 다음날 아프지 않은 부위가 없다고 할 정도”라며 광주 관계자가 귀띔했다.

이처럼 광주가 강한 육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장기 레이스, 생존경쟁까지 겹친 상황을 버티려면 상대보다 한 걸음 더 뛰어야 한다고 본다. 광주는 K리그2에서 5패만 내졌으나 올해는 다르다. 승

순천 캠프서 지옥의 체력훈련 박진섭 감독 “선수들 몸 최상”

리의 짜릿함보다 패배의 아픔이 잦아질 수 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나 육체도 정신력에 영향을 준다.

다행히 선수단 상태는 좋다. 최근 순천에서 만난 박진섭 감독은 “선수들이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휴식기부터 몸을 잘 만들어 왔다. 생각 이상으로 좋다”고 했다. 두 번의 강도, 또 두 번의 승격을 경험한 광주는 더 이상 아픔 없는 확실한 정착을 바라본다. K리그1 통런을 향한 광주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순천 | 남정현 기자



광주 박진섭 감독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비교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콕꽂 채워줍니다.



www.infodb.co.kr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은지?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 보험을 통한 '절세 노하우'까지?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 중복가입으로 출출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보험전문가가 '비교진단'해 드립니다.



FM에셋

24시간
무료상담

080-235-0119